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72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12.25~2025.12.3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6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서비스(복지/청년/인구), 기반(버스/생활), 대응(체계), 성과(오영훈/평가), 투자(농업)
경제·관광	여행(마을/크루즈/서비스), 생산(농업/메밀/농가), 기반(공급/서비스), 상승(소비), 평가(성과)
지역·사회	평가(성과), 지역사회(나눔/실천), 차량(도로/생활), 장애인(치료/데이터), 대응(구조/눈)

※ 분석 기간 : 25.12.25.~25.12.31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서비스(복지/청년/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원스톱 지원 -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본격 운영
	기반(버스/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항공 분야 대규모 예산 투자 - 버스정보시스템 및 안내 서비스 개선 - 빗물 활용 등 대체 수자원 기반 확충
	대응(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 체계 가동 - 의료기관 불편 민원 예방 대응 - 2026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성과(오영훈/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산업 육성 및 산단 지정 성과 - 청년 정책 정부 평가 최우수 선정 - 현장 도지사실 운영 및 민원 해결
	투자(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1차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 디지털 농업 및 데이터 기반 구축 - 탄소중립형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여행(마을/크루즈/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마을 여행 여행사 모집 - 제주 크루즈 관광 75만 돌파 - 불법 숙박영업 집중 단속
	생산(농업/메밀/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메밀 향산화 효능 입증 -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위협 - 역대 최고 등심 한우 출하
	기반(공급/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 제주형 디지털 농업 고도화 - 산업용지 공급 대폭 확대
	상승(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총생산 4분기 연속 감소 - 소비자 물가 및 장바구니 부담 - 제조업 경기 전망 악화
	평가(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올레 경제효과 1조원 - JDC 경영 혁신 우수 사례 - 관광진흥 유공 정부 포상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평가(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최우수 S등급 -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기관 선정 -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매우 우수
	지역사회(나눔/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고록 아저씨' 27년째 쌀 기부 - 여성기업인협회 연대와 나눔 실천 - 도청 마라톤동호회 '도르미' 성금 기탁
	차량(도로/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도 렌터카 사고 급발진 정황 없음 -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확대 - 주택가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심화
	장애인(치료/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장애여성시민연대 창립 - (가칭)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 난치성 섬유화 질환 원인 규명
	대응(구조/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연시 해넘이 행사 안전 관리 - 강풍·대설 대비 비상 대응 -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 발령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12월 25일~12월 31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658건임
 - 정치·행정 분야 246건, 경제·관광 145건, 지역·사회 267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서비스(복지/청년/인구), 기반(버스/생활), 대응(체계), 성과(오영훈/평가), 투자(농업)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서비스(복지/청년/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원스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신청일 기준 분할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2026년도 지원금 전액인 16만 8000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이용자의 편의성과 자금 활용도가 크게 높아짐. ·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를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
-------	---------------	---

정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만족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서비스 이용자 2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과정 만족도 90.0점, 서비스 내용 만족도 89.4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정책의 실효성과 도민 신뢰도를 확인함. ·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고 서비스 종류를 5대 9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와 상담콜을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본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실제 제주에 머무는 생활인구의 규모, 이동 흐름, 방문 목적 등을 시각화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 이를 도시계획 및 생활 인프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분산되어 있던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정보를 통합하여 오피스 실시간 예약 및 바우처 정산 기능을 제공하고,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함.
	기반 (버스/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항공 분야 대규모 예산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390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 환경 개선 및 택시·렌터카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영주차장 복층화 및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함. · 대중교통 복지 증진에 1783억 원을 배정하여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수요응답형 읍서버스를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여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버스정보시스템 및 안내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방송 송출 정류소를 기존 388개소에서 688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버스 내 도착 정보 안내방송에 중국어와 일본어 버전을 추가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강화함. · 추자도 마을버스에 버스정보시스템 장비를 신규 구축하여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부품 수급이 어려운 노후 버스정보안내기와 차량 내 승객용 안내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버스 운행 정보 기반을 마련함. - 빗물 활용 등 대체 수자원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남원읍에 전국 최초 7500톤 규모의 중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착공하고, 소규모 빗물 이용 시설 지원 대상을 300톤 규모까지 확대하여 농업용수 등 대체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함. · 2026년까지 제주도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지하수 고갈 우려가 있는 서부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맞춤형 물 복지 실현 방안을 모색함.
	대응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 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심사를 거쳐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함. · 교통, 시설, 산업 등 전 분야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한 우수자에게 최대 30만 원, 다수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단순 민원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우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정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불편 민원 예방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년간 접수된 의료기관 불편 민원 415건을 전수 조사 및 분석하여 불법 의료광고, 불친절 등 반복 발생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함. · 빈발 민원 사례와 처리 절차를 담은 실무 편람을 제작하여 의료기관과 행정 부서에 배포하고, 보건소 및 자치경찰단과 협업 체계를 가동하여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함. - 2026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개 분야 18개 영역에서 실생활 밀착형 교육을 추진하고, 안전교육 협의체를 통해 유관기관 간 교육 프로그램의 중복을 방지하고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재난 이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도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함.
	성과 (오영훈/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산업 육성 및 산단 지정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도정의 핵심 미래 산업인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옛 탐라대 부지인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연구·제조·운영이 결합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정적, 법적 기틀을 완성함. · 한화제주우주센터 준공과 더불어 22개 우주·첨단 기업의 입주 의향을 확보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둠. - 청년 정책 정부 평가 최우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최우수 등급을, 미취업 청년의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오영훈 도정의 청년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이 전국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음. ·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심리 상담, 진로 설계 등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도 이탈 방지 및 취업 연계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이끌어냄. - 현장 도지사실 운영 및 민원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가 직접 읍면동을 찾아가는 '현장 도지사실' 운영을 통해 총 126건의 민생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 중 10건은 즉시 완료, 101건은 추진 중으로 분류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소통 성과를 보임. · 접수된 민원 중 제주형 일자리 창출, 월동작물 수급 안정 등 파급력이 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함.
	투자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1차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2026년 농업·축산·식품 분야 예산으로 2412억 원을 편성하여 농민수당 인상,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금융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1637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농업 소득 안전망을 강화함. · 제주시도 1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392개 사업에 2310억 원을 투입하며, 친환경 농업 육성, 감귤 유통 혁신, 축산 선진화 등 분야별 전략 과제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

정치·행정	투자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농업 및 데이터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디지털 농업 플랫폼 '제주DA'의 2단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AI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병해충 예찰, 토양 비료 처방, 생산량 예측 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여 과학 영농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 2026년부터 도내 전 농지를 대상으로 위성 영상을 활용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배 면적과 이용 현황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밀한 농업 정책 수립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다짐. - 탄소중립형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가치를 담은 탄소중립 스마트 축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가축분뇨 정화 처리, 악취 저감, 메탄 저감 사육 등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세부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 ·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승마 시설 확충에 89억 원을 지원하고, 곤충 사료화 및 양봉 산업 기자재 지원 등 축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조성함.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여행(마을/크루즈/서비스), 생산(농업/메밀/농가), 기반(공급/서비스), 상승(소비), 평가(성과)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여행 (마을/ 크루즈/ 서비스)	<p>- 2026 마을 여행 여행사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마을 여행 서비스 품질 혁신 및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여행사 및 크리에이터 공개 모집 추진임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026년 1월 한 달간 제주 마을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외부 고객과 연결할 전담 여행사와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며, 선정 시 1년간 인증 지위 부여 및 상품개발, 마케팅, 리브랜딩 등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밝힘. · 민간의 창의적 기획력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로컬관광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도모함 . 이번 공모는 농어촌 마을이나 로컬 지역에서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기획·홍보한 실적이 있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여행업 자격을 보유한 전담 여행사와 혁신 기술을 보유한 크리에이터 등 2가지 분야로 나누어 총 10개소 내외를 선정해 육성할 예정임. <p>- 제주 크루즈 관광 75만 돌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 수가 75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 최다 기록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 지속함 . 지난해 64만 명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특히 강정항을 중심으로 입항이 크게 늘었으며 준모항(제주에서 승하선 가능) 운영 체계 구축과 해외 마케팅 강화, 무인 자동심사대 도입 등 수용태세 개선 노력이 관광객 증가와 체류형 관광 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크루즈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및 항만별 점유율 격차 심화 현상이 확인됨 . 크루즈 1척당(승객 3천 명 기준) 약 8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강정항 이용객 비중이 73%를 넘어서는 반면 제주항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항구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p>- 불법 숙박영업 집중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 질서를 저해하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함 . 제주자치경찰단은 단기 임대를 가장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하거나 타운하우스 등에서 미신고 영업을 지속해 온 업소 46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수치로 일부 업체는 수년간 역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엄정 조치 방침을 밝힘. ·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 주의 사항 안내 및 불법 영업 감시 체계를 강화함 . 소비자는 환불 규정 확인 및 시설 상태 점검 등 숙박 시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당국은 대규모 숙박 영업 의심 시설에 대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생산(농업/메밀/농가)	<p>- 제주 메밀 향산화 효능 입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대 주산지인 제주 메밀의 체중 증가 억제 및 항염 효과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규명됨 . 제주도농업기술원과 제주대학교 공동 연구 결과, 메밀 추출물이 지방세포 내 지질 축적을 감소시키고 실험쥐의 체중 증가를 10~25%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특히 '황금미소' 품종은 높은 향산화 활성을 보여 바이오·헬스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임.

경제·관광	생산(농업/메밀/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제주 메밀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가공 제품 개발 확대 추진함 .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메밀을 활용한 간편식, 전통주 등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로 연구 범위를 넓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메밀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계획임. -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에 따른 내년 미국산 만다린 관세 철폐로 제주 감귤 산업의 가격 경쟁력 하락 및 피해 우려가 고조됨 . 최근 미국산 만다린 수입량이 폭증하고 수입 단가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 내년 관세가 0%로 전환되면 수입 물량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수입 집중 시기가 제주 만감류 출하 시기와 겹쳐 산지 가격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농산물 대응을 위한 단계별 매뉴얼 마련 및 국내산 품질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함 . 농업인 단체는 특별긴급관세 검토 등 정부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 AI 선별 시설 현대화, 고품질 저장 기술 확보, 통합 브랜드 구축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도출됨. - 역대 최고 등심 한우 출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역대 최고 등심 단면적을 기록한 슈퍼 한우 거세우가 출하되어 제주 한우의 개량 성과를 입증함 . 제주시 한림읍 변철희 농가가 출하한 29개월령 한우의 등심 단면적은 171㎢로 전국 평균(100㎢)을 크게 상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육질과 육량 면에서도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대상 수상 개체에 버금가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함. · 체계적인 사양 관리와 사료 공급 시스템이 고품질 한우 생산의 핵심 비결로 분석됨 . 해당 농가는 농협의 TMR 사료 급여 등 체계적인 사양 관리와 개량 노력으로 일반적인 출하 시기보다 2개월 빠른 성장을 달성했으며, 이러한 성과는 제주 한우 브랜드 '보들결'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
	기반(공급/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동부권 주거 거점 조성을 위한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국토부 심의를 거쳐 최종 완료됨 . 제주시 화북이동 등 일원 92만㎡ 부지에 주택 5,500호를 공급해 1만 2천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인접한 삼화지구 및 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와 연계 개발하여 제주시 동부권의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예정임.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도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활력 제고 기대함 . 2027년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며, 문화·공공·업무 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 및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됨. - 제주형 디지털 농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 1단계 완료에 이어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함 . '제주DA' 플랫폼을 중심으로 농업인은 정보를 쉽게 활용하고 행정은 정확한 정책 판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재해

경제·관광	기반 (공급/ 서비스)	<p>예보, 병해충 예찰, 토양 비료 처방 등 6개 분야의 데이터 기능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현장 활용성을 높일 계획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관리를 위해 드론 관측 및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확대 구축함 . 월동무, 양배추 등 주요 작물로 생산량 및 가격 예측 모형 대상을 확대하고, 드론 영상 데이터를 축적해 작황 분석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임. <p>- 산업용지 공급 대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향후 10년간 산업용지 공급 면적을 기존 대비 7배 이상 확대한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확정함 . 지난 10년 간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유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계획 면적을 72만 9,000㎡로 대폭 늘렸으며, 이를 통해 IT, BT 등 첨단 지식산업 분야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함. ·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함 . 단순히 용지 면적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정 제주의 환경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시설이 집적화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환경 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기업을 우선 유치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임.
	상승 (소비)	<p>- 지역내총생산 4분기 연속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경제 성장률이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부진으로 인해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으며, 이는 전국적인 성장세와 대조적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을 기록해 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제조업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인 건설업 침체 심화가 경제 전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 .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은 증가했으나, 건설업 GRDP가 17.1% 급감하며 7분기 연속 역성장했고, 경제 비중이 큰 서비스업마저 정보통신, 부동산 부문의 부진으로 3.2% 감소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p>- 소비자 물가 및 장바구니 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제주 소비자물가가 2%대 상승률을 유지했으나 식탁 물가와 직결된 품목의 가격 급등으로 체감 물가는 높음 . 전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나 농축수산물 가격이 4.3% 오르고 신선식품지수가 급등했으며, 특히 고등어(27.5%), 굴(18.6%) 등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해 서민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고환율 여파로 인한 석유류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가게 소비여력을 제약함 . 석유류 가격이 3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가공식품 가격 또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생활물가지수가 3%대를 기록했고, 이러한 고물가 기조는 소비 심리 위축과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 내수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p>- 제조업 경기 전망 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제조업체들의 내년 1분기 경기 전망이 수요 부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함 . 제주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경제·관광	상승 (소비)	<p>(BSI)가 전 분기 대비 26포인트 급락한 64를 기록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 또한 동반 하락해 경영 환경 악화가 우려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자재 가격 변동과 인건비 부담이 기업 수익성을 압박하며 목표 실적 달성에 차질을 빚음 . 조사 대상 기업의 약 70%가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 원자재가 상승과 인건비를 꼽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경기 부양책과 실질적인 투자 촉진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평가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올레 경제효과 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올레가 단순 관광지를 넘어 연간 1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임이 입증됨 . 제주연구원 분석 결과 제주올레는 연간 6,630억 원의 소비 지출을 유발하고 1조 2,24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 대비 경제적 파급력이 월등히 성장했음을 수치로 확인함. · 도보 여행객의 소비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으로 순환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올레꾼들의 소비는 대형 사업장보다 지역 내 숙박, 음식점 등 자영업 상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의 70% 이상이 도내에서 발생하는 등 지역 밀착형 소비 구조를 형성해 낙수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음. - JDC 경영 혁신 우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경영 위기 극복과 조직 쇄신을 위해 발굴한 경영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함 . 경영 평가 등급 하락 등 위기 상황에서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전사적 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 사례 공모를 진행했으며, 물류비 절감, AI 기반 업무 혁신, 청년 거버넌스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부서들을 선정해 포상함. · 공공기관으로서의 혁신 의지를 다지고 핵심 사업의 내실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이번 혁신 대회는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전 직원이 위기를 공감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스마트 융합, 미래 인재 육성 등 핵심 과제 추진에 혁신 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경영 정상화와 지역 사회 기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임. - 관광진흥 유공 정부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사회 공헌에 기여한 공로로 한림공원 송상섭 대표가 관광진흥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함 . 송 대표는 지속적인 재투자과 ESG 경영 실천, 제주대학교와의 연구 협력 등을 통해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었으며, 문화예술 지원과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 지역 향토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관광 명소 육성 의지를 재확인함 . 이번 수상은 단순한 기업 성과를 넘어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앞으로도 제주 관광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힘.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평가(성과), 지역사회(나눔/실천), 차량(도로/생활), 장애인(치료/데이터), 대응(구조/눈)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평가(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최우수 S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한 비상진료체계 기여도 평가에서 제주한라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및 진료 실적 등 6개 핵심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함. 이는 의료 대란 속에서도 제주 지역 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됨. · 앞선 중앙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모두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한 단계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의료 역량을 증명함. 특히 제주 지역은 응급실 이용 만족도 전국 2위, 급성 뇌졸중 환자의 적정 시간 내 도착률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우수함. -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함. 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관리 강화와 시설비 불용액 최소화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	--------	--

지역·사회		<p>점수 123.62점을 기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로는 예산 적정 집행 분야가 전년 대비 20점 이상 상승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으며, 시설사업 예산 전 과정 관리 강화 사례가 운용 개선 우수 사례로 꼽힘.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제주 교육재정의 체계적인 관리 능력이 입증된 사례임. <p>–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매우 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종합점수 91점을 획득하여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음. 이는 기후 회복력 부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기후 대응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됨.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율 또한 39.58%로 전국 2위를 기록하며 도민 주도의 생활 속 실천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줌. 제주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도민 기후행동 인센티브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지역사회(나눔/실천)	<p>– '노고록 아저씨' 27년째 쌀 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 '노고록 아저씨'가 연말을 맞아 서흥동주민센터에 300만 원 상당의 쌀 1000kg을 기탁함. 그는 27년 동안 매년 설, 추석, 연말마다 총 3회씩 쌀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꾸준한 선행으로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고 있음. · 기부 때마다 제주 방언으로 "새해에는 더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는 의미의 '노고록'이라는 단어가 담긴 메모를 함께 보내와 별명이 붙여짐. 그의 오랜 나눔 실천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과 귀감이 되고 있음. <p>– 여성기업인협회 연대와 나눔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제주여성기업인협회가 '같이의 가치'를 주제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나눔을 실천함. 이날 모인 성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단순한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어짐. · 행사에는 100여 명의 회원과 주요 내빈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연대 가치를 나누고 포용의 의미를 되새김. 협회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성 기업인들의 역량을 모아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함. <p>– 도청 마라톤동호회 '도르미' 성금 기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청 마라톤동호회 '도르미'가 회원들이 1년간 달린 거리를 돈으로 환산해 적립한 성금 약 179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함. 회원들은 1km를 달릴 때마다 200원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모았으며, 이는 2009년부터 17년째 이어져 온 전통으로 누적 기부액은 2400만 원을 넘음. · 특별한 강요 없이 회원들이 즐겁게 달리며 자연스럽게 나눔에 동참하는

지역·사회		<p>방식이 지속가능한 기부 모델로 자리 잡음. 도르미 동호회는 이 외에도 지역 육상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건강한 체육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범적인 공직자 동호회 활동을 보여줌.</p>
	차량(도로/생활)	<p>- 우도 렌터카 사고 급발진 정황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지난달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렌터카 돌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운전자의 신발 감식 등을 종합한 결과, 운전자가 주장했던 급발진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통보됨. · 경찰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에서 차량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음. 해당 사고는 14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로,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임. <p>-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부터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함. 단, 단순 면허 소지자가 아닌 보험 가입 이력 등을 통해 실제 운전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혜택을 2배로 확대 적용할 방침임. · 이는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롱 면허' 반납보다는 실제 도로 위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마련됨. 도는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p>- 주택가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연동 등 도심 주택가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이사 화물차 등으로 인해 극심한 주차난과 통행 불편을 겪으며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있음. 주민들은 소방시설 주변까지 점령한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 위험과 보행 안전 위협을 호소하며 행정 당국에 강력한 단속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결과 90% 이상이 단속 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임. 제주시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맞물려 주민 간 갈등까지 유발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장애인(치료/데이터)	<p>- 제주장애여성시민연대 창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장애 여성들의 권리 증진과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당사자 중심의 단체인 '제주장애여성시민연대'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함. 이 단체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차별 속에 놓인 장애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사회 내 연대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임. · 주요 활동 목표로 장애 여성의 인권 증진, 자립 생활 지원, 폭력 예방,

지역·사회		<p>정책 제언 등을 설정했으며, 장애 여성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초대 상임대표로는 김경미 제주도의원이 선출되어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는 활동을 약속함.</p> <p>- (가칭)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교육청이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9년 개원을 목표로 '(가칭)제주특수교육원' 설립을 본격 추진함. 교육부 특별교부금 15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동력을 얻었으며, 제주시 오등동 일대에 장애 이해 교육관, 특수교육 지원 공간 등을 갖춘 전문 기관으로 조성될 예정임.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최근 5년 새 30%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수교육원은 진로 설계, 행동 중재, 치유 정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됨. 이는 제주 지역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p>- 난치성 섬유화 질환 원인 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한의학연구원과 민간 기업이 공동 연구를 통해 난치성 섬유화 질환이 정상적인 산소 환경에서도 악화되는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함. 연구진은 세포가 활성산소로 인해 산소가 충분함에도 부족한 상태로 오인하는 '산화적 저산소' 현상을 발견했으며, 이는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성과임. · 이번 연구는 제주 지역 바이오 연구 역량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난치병 치료를 위한 데이터 축적과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연구진은 해당 기전을 바탕으로 한 물질을 개발 중이며, 이는 폐, 간 등 장기가 굳어가는 섬유화 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대응(구조/눈)	<p>- 연말연시 해님이 행사 안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연말연시 해님이·해맞이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함. 성산일출축제, 한라산 야간 산행 등 주요 명소에 8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인파 밀집도 관리, 차량 통제, 보행자 동선 분리 등 사고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 특히 기상 악화 시에는 행사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조기 통제하는 등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없는 연말연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임. 이는 제야 행사와 해돋이 등 성격이 다른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점을 감안한 맞춤형 대응 전략임. <p>- 강풍·대설 대비 비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 첫날부터 제주 산지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과 강한 바람이 예보됨에 따라 제주도가 도로 제설 대책과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함. 기상청은 대설특보 발효 가능성을 예고하며 산간 도로 빙판길 안전 운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공항과 항만 이용객들에게 운항 정보 사전 확인을 당부하는 한편, 강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함. 1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와 상황 관리가 요구됨. -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 기상 악화와 해안가 인파 집중을 대비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주의보' 단계로 격상하여 발령함.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순찰 활동을 확대함. · 실제로 마라도에서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경은 테트라포드 등 위험 구역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안전 시설물을 점검함. 해경은 해님이 관광객과 낚시객들에게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리한 연안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함.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